

수행의 길잡이 선가귀감



<10> 한마음과 참 성품을 보는 법

<선가귀감>에서는 처음부터 선(禪)이 근본이 되고 교(敎)가 방편이 된다고 이야기한다. 선은 근본이어서 상근기가 취할 만하고, 교는 방편이어서 중근기들이 취할 만한 것이라고 한다.

그렇다면 선은 근본이고 교는 결가지라는 뜻일까? 그래서 교는 무시하고 선만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일까?

아니다. 선은 부처님의 마음을 뜻하고 교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뜻한다고 했으니, 선과 교를 완전히 분리해서는 안 된다. 부처님의 마음을 바탕으로 하여 부처님의 가르침이 전해지고, 부처님의 가르침이 있으므로 그것을 길잡이 삼아 부처님의 마음을 찾아갈 수 있기 때문이다. 부처님의 마음은 '허공에 떠 있는 달'이고, 부처님의 가르침은 하늘에 떠 있는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이라 함은 그런 뜻을 비유하는 말이다. <선가귀감> 8장에서는 이런 내용을 말한다.

敎門傳傳一心法 禪門傳傳見性法
교(敎) 쪽에서 공부하는 길은 오직 한마음에 관한 법을 전할 뿐이고 선(禪) 쪽에서 공부하는 길은 오직 참 성품을 보는 법을 전할 뿐이다.

여기서는 먼저 '한마음'과 '참 성품'의 개념을 알아야겠다. 한마음이란 무엇인가? <화엄경>에서는 '일체유심조(一切唯心造)'라고 하여 '모든 현상은 오로지 마음이 만들어낸 것'이라고 한다. 이 말처럼 '한마음'이란 '모든 현상의 근원에 있는 마음'을 뜻한다.

눈으로 드러나는 현상에는 많은 차별이

있을지라도 그 근원에 있는 바탕인 한마음은 조금도 차별이 없다는 것이다. '참 성품'이란 한마음의 바탕에서 일어나는 '마음의 빛'을 말한다. 서산 스님은 이것을 거울에 비유해 설명하기를 "마음은 거울의 바탕과 같고 성품은 거울의 빛과 같다. 참 성품은 본디 맑고 깨끗한 것이므로 이 성품만 특 특한다면 그 자리에서 곧바로 본디 마음을 얻을 것이다."라고 하였다. 이 말의 요지는 '근본 뜻을 아는 한 생각' 아주 중요하게 여긴다는 것이다. 서산 스

모든 현상 마음이 만들어낸 것 한마음 알면 참 성품도 알게 돼

님은 계승으로 말한다.
重重山與水 清白舊家風
겹겹으로 둘러싸인 산과 물이여 깨끗하고 맑고 맑은 옛집의 풍류.

서산 스님은 다시 "마음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으니 '본바탕의 근원에 있는 마음(本源心)'과 '나타난 형상에 끄달리는 무명의 마음(無明取心)'이 있다. 성품에도 두 가지 종류가 있으니 '본디 법으로서 있는 성품(本法性)'과 '성(性)과 상(相)으로써 상대적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는 성품(性相相對性)'이 있다."라고 말한다.

여기에서 말하는 '본바탕의 근원에 있는 마음'과 '본디 법'으로서 있는 성품'은 곧 부처님의 자리이다. 이 내용을 합쳐 다른 말로 바꾼다면 '공적영지(空寂靈知)'이다. '공적(空寂)'이란 모든 시비와 분별이 끊

어진 '고요한 마음자리'이고, '영지(靈知)'란 그러한 자리에서 드러나는 '태양처럼 빛나는 지혜'이다. 고요한 마음자리가 있어야 빛나는 지혜가 드러나고, 빛나는 지혜가 드러날 때 고요한 마음자리가 있게 된다. 고요한 마음자리가 빛나는 지혜요, 빛나는 지혜가 고요한 마음자리이다.

이것을 서산 스님께서서는 "마음은 거울의 바탕과 같고, 성품은 거울의 빛과 같다"라고 말씀하신 것이다. 따라서 '본바탕의 근원에 있는 마음'을 알게 되면 '본디 법'으로서 있게 되는 성품'을 저절로 알게 된다. 바꾸어 말하면 '한마음'을 제대로 알면 바로 그 자리에서 '참 성품'도 알 수 있다. 교(敎)를 제대로 알기만 하면 선(禪)도 제대로 알 수 있다는 것이다.

이와는 반대로 '나타난 형상에 끄달리는 무명의 마음'과 '성(性)과 상(相)의 상대적 개념으로써 이해할 수 있는 성품'은 곧 중생의 자리이다. 부처님의 자리에서 근본마음만 알면 공적영지(空寂靈知)로서 교(敎)도 선(禪)도 다룰 바가 없게 되지만, 중생의 자리에서는 근본 성품을 알지 못하면 선(禪)도 교(敎)의 자취가 되고 만다.

이런 이치를 깨닫지 못하고 선과 교가 서로 옳다고 다투기만 한다면 선을 공부하는 사람이나 교를 공부하는 사람들이 모두 똑같이 어리석다고 할 수밖에 없다.

눈앞에 보이는 이름이나 형상에 집착하고 알음알이만 내어 혹 알은 것도 깊다 주장하고 혹 깊은 것도 알다고 우기기 때문이다. 이런 것들이 모두 공부하는데 큰 병통이 됨으로 여기에서 그 시비를 가려낸다. <선가귀감> 4장에서는 말한다.

온갖 이름을 억지로 갖다 붙여서 혹은 마음이라 하고 혹 부처님이라 하며 혹 중생이라고 한다. 하지만 이름에 얽매어 알음알이를 내서는 안 된다. 그 밑바탕에서는 모든 것이 옳지만 한 생각 움직이면 근본 뜻에 어긋나는 니라. ■원승 스님(승광사 인월암)

한입에 소옥~ 불교 상식

108번뇌는 무엇?

'108번뇌'란 말은 참으로 익숙합니다. 그 흔한 대중가요의 가사에도 쓰일 정도니, 일상의 언어로 자리 잡은 셈이지요. 이후 되면, 108번뇌란 단어는 이미 불자들만의 것도 아닙니다. 불교에서는 108배, 108삼배, 108계단 등 108이란 숫자를 많이 쓰고 있지만, 이 숫자가 어떻게 생겼는지도 불자들조차 잘 모릅니다. 그럼, 산수공부를 좀 해볼까요? 우리는 인식의 6가지 뿌리인

'육근(六根)'과 그 대상인 '육경(六境)'이 서로 작용합니다. 눈 귀 코 혀 몸 의식 등의 육근, 색깔 소리 향기 맛 접촉 물질 등의 육경이 '출다(好)' '나쁘다(惡)' '중지도 나쁘지도 않다(無記)'를 끊임없이 가는 질을 하지요. 그러므로 108번뇌는 육근이 육경과 상호작용해 3가지 판단을 내리기 때문에 6×3=18번뇌가 됩니다. 또 6경에 대해 '괴롭다(苦受)' '즐겁다(樂受)'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다(捨受)'란 3가지 감정이 일으키기에 다시 6×3=18를 더해 36번뇌가 됩니다. 그리고 이 36번뇌에는 과거, 현재, 미래가 있기에 36×3=108번뇌가 되는 겁니다. 번뇌는 집착입니다. 자신과 타인, 소유물 등에 집착하기에 바른 깨달음을 얻을 수 없게 되는 거죠. 김철우 기자 in-gan@buddhapia.com

한형조 교수의 금강경강의 (85)

붓다의 유머 그 날카롭고 따뜻한



2부 31강 무아로 여는 평화

<금강경> 제 3장은 말한다. "보살은 우주인의 모든 생명을, 사람을 포함하여 미물과 천상의 존재들에 이르기까지, 다들 무여(無餘)열반에 들도록 인도(度)한다. 그러나 그들 모두를 인도한다 하더라도 실제로는 아무도 인도된 바 없다. 왜냐? 보살은 사상(四相), 즉 아상(我相) 인상(人相) 중생상(衆生相) 수자상(壽者相)이 없기 때문이다."

오늘은 여기 핵심어인 사상(四相)을 살펴 본다. 이들은 '자아의 네 가지 양상, 혹은 위상'에 해당한다. 하나 미리 짚어두자면 이들은 서로 연계되어 있다. 인상(人相)은 아상(我相)과 대립되어 보이는 듯하지만, 실은 같은 자아의식의 한 유행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그것은 이른바 인아상(人我相)과 혼동되어서는 안 된다. 인아상은 '남(人)과 나(我)를 갈라보는 의도적 구분'으로 번역되지만 인상(人相)은 '남'이 아니라 '사람' 혹은 '인격'의 구조물을 가리키는 말이다. 사람 인(人)자는 이렇게 여러 뜻을 가지고 있으니 유의해야 한다.

1) 콘즈의 해석
이 넷은 어떻게 구분되는가. 한문만 보아서는 선명치 않다. 한역의 근본은 산스크리트어일 것이다. 거기서 직접 영역한 콘즈의 도움을 받아볼까 싶었다. 콘즈는 이 넷을

이렇게 영역하고 있다. "And why? He is not to be called a Bodhi-being, in whom the notion of a self or of a being should take place, or the notion of a living soul or of a person." 번역하면 이렇게.

"왜냐? 그런 사람은 보살로 불리지 않을 것이다. 보살에게는 '자기'라는 관념, '존재'라는 관념이 일어나지 않는다. 혹은 '살아있는 것'이라는 관념, 그리고 '인간'이라는 관념도 없다."

반복하자면 콘즈는 아상(我相)을 '자기'라는 관념(the notion of a self), 인상(人相)을 '존재'라는 관념(the notion of a being)으로, 그리고 중생상(衆生相)을 '살아있는 것'이라는 관념(the notion of a living soul), 수자상(壽者相)을 '인간'이라는 관념(the notion of a person)으로 번역했음을 알 수 있다. 이에 대한 더 이상의 언급이나 해설은 없다.

그는 이 책 서문에서, "설명하지 않고 남겨 놓은 것은, 내게는 애매하거나, 혹은 알 수 없는 것이다"라고 부연한 바 있는데, 이 대목에서는 자신이 없었을까. 구마라습의 한역과 콘즈의 영역을 대조하면 공통점도 분명하다. 아(我)가 '자기'라는 데는 이견이 없을 것이고, 인(人)은 일반적으로 '존재'하는 사람들을 가리킨다. 중생(衆

生)이 '살아있는 목숨들'을 가리키는 것이야 상식이고, 또 수자(壽者)는 '시간의 지속성'과 연관된 중심적 인격을 가리키고 있다. 요컨대 이런 관념이 보살에게는 없다는 것이다. 이들을 종합하면 한 마디, 결국 무아(無我)가 된다!

2) 내역축의 해석
이 넷의 불교적 맥락과 논란을 따지기 시작하면 머리가 지끈거릴 수도 있다. 거두절미하고 이 넷을 다른 방식으로 읽어보면 어떨까. 가령, 이 넷을 '자아'의 외연이 확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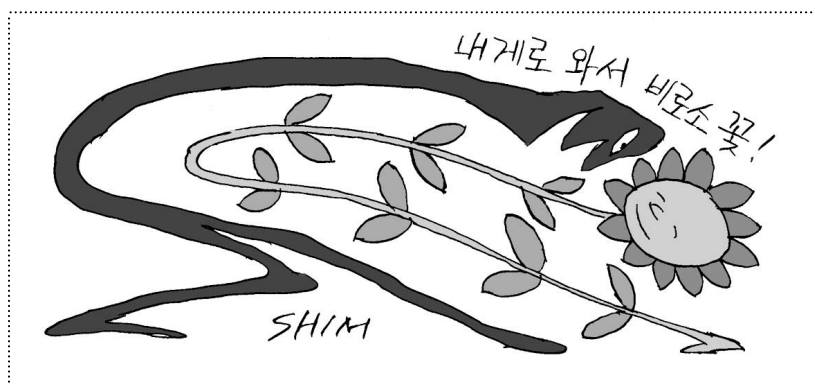
욕심 버리기

배종훈 (bjh4372@hanmail.net)

보존하고자 하는 원초적 욕구이며, 수자상(壽者相)에 대한 인간의 무의식적 조바심을 가리킨다는 생각이 든다. 너무 제멋대로의 영중환 해석이라고 핀잔을 줄지 모르겠다.

3) 자아의 토대(住)
아무래나 각자 이런 다양한 수준에서의 자아의식을 '토대(住)'로 세상을 본다. 그러나 모든 것이 주관적 이미지(相)가 아닐 수 없다. 예외 없이 누구나 이 토대에 바탕 하여 사대를 판단하고, 행동을 결정하는데, 우리는 그렇게 만든 자기만의 '세계' 안에서 살고 있다.

사상, 고통 낳는 무명의 핵심



다. 이를 삼계육식(三界六識)이라고 부른다. 내 밖의 대상은 언제나 '나에 대해서만' 의미를 갖는다. 나의 관심과 이익에 호의적이면 유익하면 푸른색 딱지를, 그렇지 않으면 빨간색 딱지를 받는다. 내 밖의 것은, 사물이든 사람이든, 내게 목적이 아니라 수단으로 인지된다.

든 활동의 기저, 그것을 우리는 '나'라고 부른다. 우리가 말하는 세상, 혹은 인간관계는 기실, 이런 도구화의 위태롭고 불안정한, 주로 엇갈리고 때로 충돌하는 네트워크라고 할 수 있다! 이 마음을 고쳐야 세상 안팎에 평화가 온다. 이것이 '마음'의 비밀이다. 환상의 거짓 마음을 비우고, 진정 나였던 마음을 찾아야 한다. 그것이 불도(佛道)이다. 문득 '나 아닌' 마음을 비울 때, 도구화의

네트워크였던 세상이 허무아침에 사라지고, 전혀 다른 천지가 펼쳐진다. 그것이 깨달음이다. 깨달음이란 사상(四相)으로 인한 의식 무의식적 오염을 제거하는 일이다. 그 자자(智慧, 般若)로 하여 갈등과 혼란은 일시에, 훗날 앞에 어둠이 물러가듯, 문득, 기적처럼 사라진다. 거기서 이루어야 할 모든 것이다.

4) 환상을 깨다
누구나 환상을 갖고 있다. 우리는 자아, 혹은 사상(四相)이 추종시킨 환상, 신기루, 그림자 속에 살고 있다. 아시겠는가. 스스로 세계의 중심이라고 믿는 것은 기본이다. 모두 예외 없이 왕자병과 공주병 증후군을 앓고 있다. 남자들은 가정이나 직장에서 힘과 권세를 과시하고자 한다.

어인네들은 너무 노골적이지 않은, 은근한 칭찬에, 그만 도취되고 만다. 모두들 칭찬하면 좋아하고, 비난하면 싫어한다. 모두들 자신은 착한데, 세상에는 싸가지 없고 파렴치한 사람이 너무 많으며, 자신은 민족을 위해 봉사하는데, 다른 사람은 자신밖에 모르는 이기주의자라고 매도한다. 자신은 아름다운 로맨스를 가지고 있는데, 다른 사람들은 불륜에 빠져있다고 탄식한다. 같은 일이라도 내게 적용되는 기준과 남에게 적용되는 기준이 다르다. 내 편이 잘못은 작아 보이고, 저편 그룹의 잘못은 아주 커 보인다.

우리의 판단과 견해, 그리고 정서와 충동은 이런 과정을 통해 근본적으로 오염되어 있다. 그 오염은 우리가 날마다 행하는 말과 한 순간도 쉬지 않는 생각 속에 그대로 드러나 있다! 그 때문에 불교는 말을 불신하고 위태롭게 여긴다. 아울러 생각과 아이디어를 개발하기보다, 그 흐름을 제어하고 제압하고, 나아가 제거해야 한다고 가르치는 것이다. 기억할 것인데, <금강경>은 말한다. 아생의 소를 길들듯, 우리는 "마음을 항복시켜야 한다!" ■한국학중앙연구원